

# 임실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공모사업... 전국 단 2곳 선정 쾌거

임실군이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임실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공모사업에는 전국적으로 10여 개 기관이 신청한 가운데 임실군과 예천군 단 2곳만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임실문화원은 내년부터 6년간 연간 1억원에서 1억8000만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은 문화 향유의 저변이 열악한 지역이나 문화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이 오케스트라 합주를 통해 자존감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음악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군은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선정에 계기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하여 음악 전문 강사를 통한 질 높은 클래식 음악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기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원 프로그램을 아동·청소년으로 더욱 확대해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대도시 못지않은 수준 높은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



임실문화원.

공함으로써 건강한 인성 발달과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모사업을 주도한 임실문화원 김태진 원장은 “고령화로 문화원 프로그램도 고령층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최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만

들겠다”고 강조했다.

심민 군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고품격 문화예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 기쁘다”며 “우리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여 임실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관’ 임시 휴관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이 8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상설전시관(본관)을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상설전시관 휴관 기간 동안 전시관 1층 전시환경 개선, 전시관 2층 미술실 개편 및 ‘실감콘텐츠 공간 신설’ 등 대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획전시실과 석전기념실,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야외전시장은

상설전시관 휴관과 관계없이 정상 운영된다. 기획전시실에서는 특별전 ‘용담, 새로이 기억하다’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관은 국립전주박물관 30년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로, 휴관기간 동안 진행되는 공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상설전시관 1층 로비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확장 조성된다. 2층

미술실은 미술공예품 중심의 명품 전시를 통해 따뜻하고 세련된 공간 분위기로 연출할 예정이다. 전복의 자연과 문화를 보여주는 실감콘텐츠 공간은 실감콘텐츠 관람과 함께 2층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전시 환경 개선을 통해 국립전주박물관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는 새로운 전주박물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장수문인협회, 제8대 회장에 김종윤 부지부장 추대

한국문인협회장수군지부(이하 장수문협)는 지난 9일 오후 7시 장수를 송천기에서 임시 총회를 갖고 제8대 군지부장(회장)에 김종윤 부지부장을 추대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제7대 고강영 지부장이(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장수지회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제8대 김종윤 군지부장과 김명희 부지부장을 각각 추대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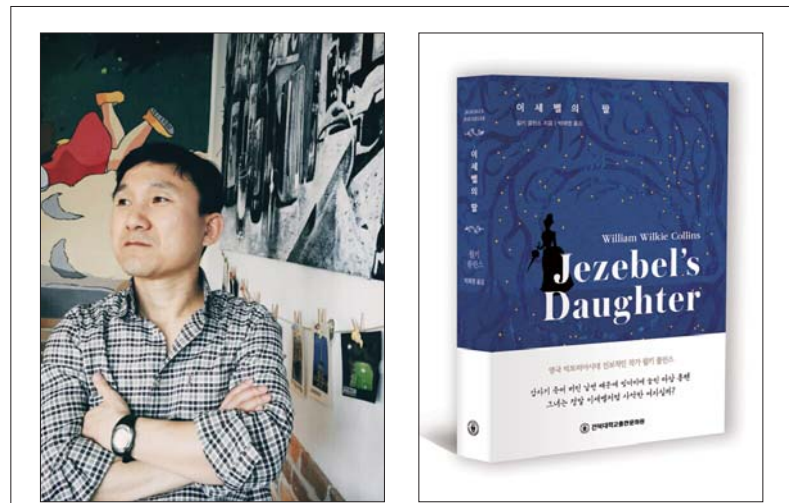
임기는 8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김 지부장은 2009년 ‘대한문학 25호’로 등단한 수필가로 전북수필문화회원, 행촌수필문화회원, 영호남수필문화회원, 전북문인협회 회원, 장수예총 이사(문인), 한국문인협회 장수군부지부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시나브로 가는길’ 수필집 출판, 장수군신립조합 상무



를 역임했다.

김종윤 지부장은 “먼저 지부장으로 추대 해주신 장수문협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원님들의 귀한 뜻을 받들어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한 장수문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박재영 전북대 교수.

이세벨의 딸.

## 전북대 박재영 교수, ‘이세벨의 딸’ 번역 출간

영국 소설가 윌키 콜린스 작품 국내 첫 소개

전북대학교 박재영 교수(영어교육과)가 영국 소설가 윌키 콜린스의 작품 ‘이세벨의 딸’을 번역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교수는 2019년 제시 레드먼 포셋의 소설 ‘플립’과 2020년 폴리처상 수상 작가인 앨런 클래스의 로맨스 소설 ‘플립’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 소개한 이후 또 한 번의 해외 우수 작가의 작품을 국내에 선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세벨의 딸’은 1880년 작 소설로, 남편을 잃은 두 미망인 바그너 부인과 마담 폰텐의 대조적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19세기 영국 여성이 직면한 사회문화적 제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바그너 부인은 남편의 기업을 이어받아 대표 파트너가 되고, 마담 폰텐은 빛을 유산으로 받는다.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빛에 둘러싸인 미망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을까?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 한정된 세상에서 마담 폰텐은 혼기에 있는 딸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딸은 부유한 기업가의 아들과 연애 중이다. 이들이 결혼한다면 어찌면 빛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마담 폰텐은 반대에 부딪힌다. 그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약을 사용하기로 마음먹는다.

작가 콜린스는 이 소설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준다. 바그너 부인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마담 폰텐을 통해 19세기 영국 사회의 여성이 처한 곤경과 제약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아울러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선을 묘사하며 독자의 윤리관에 도전한다.

이 작품 외에도 콜린스는 스무 편이 넘는 소설과 백여 편의 단편을 썼고, 그중 많은 작품들이 연극과 영화로 재탄생됐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고작 소설 두 편과 최근 나온 단편집 한 권만 번역 출간된 상태이다. 때문에 박재영 교수는 이 작품의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콜린스를 접할 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영 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학부와 석·박사 통합과정을 공부하고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전북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장은성기자

## 한국문학세상, ‘대한민국 빅스타’ 문예대상 공모

한국문학세상은 다음달 1~30일 1달간 ‘2021 대한민국 빅스타 문예대상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문예진흥원과 공동 개최하고 한국사

이버문인협회가 후원한다. 응모 부문은 문학, 문화예술, 국민편의, 사회공헌 등이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원고지 분량을 홈페이지 ‘공모

전 투명심사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22일 발표된다. 당선작은 ‘계간 한국문학세상’ 가을·겨울호(11월)에 게재·출간된다.

당선자가 개인저서 출간을 원할 경우 소량출간시스템으로 저렴하게 출간을 지원하되 출간비의 5%를 할인해 준다. /뉴시스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